

# 믿음의 본질

## ■ 제 7 장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 (230322)

### 1. 신자가 가지는 믿음의 대상(롬 3:24)

- 1.1. 아들 하나님이 성취한 칭의(justification)
  - 1.1.1. 전생애를 통해 죄의 모든 채무를 지불하심
  - 1.1.2. 부활하실 때 ( )를 획득하심(딤후 3:16)
    - A. 성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이는 성부
    - B. 칭의의 근거는 그리스도의 순종
    - C.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대신/대표하여 칭의를 획득하심
- 1.2.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와 은혜
  - 1.2.1.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의롭지 못함
  - 1.2.2. 우리가 믿을 때, 그리스도 안에 있는 칭의를 우리가 소유하게 됨
  - 1.2.3. 하나님은 은혜와 자비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심
- 1.3. 그 이후 삶의 여정에서 두 분과 분명한 교제를 누림(요일 1:3)

### 2. 구속과 삼위일체 하나님

- 2.1. 하나님의 회합(conjunction)
  - 2.1.1. 회합: 두 행성이 하나로 겹쳐 보이는 현상 → 대회합: 800년 주기의 목성과 토성 사이의 회합
  - 2.1.2. 성경 최초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회합: "우리가 만들자!"(창 1:26)
- 2.2. 영원 전 ( )언약을 체결하실 때
  - 2.2.1. 영원 전 성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
  - 2.2.2. 성자께서 인간의 타락에 대한 처방으로서 그리스도의 역할을 자처함
  - 2.2.3. 성부께서 이에 대한 ( )으로서 성자께 그분의 소유를 약속하심(시 2:8)
  - 2.2.4. 성부께서 그리스도의 소유를 ( )하시고, ( )하심(엡 1:4-5)
- 2.3. 지상사역을 통해 구속을 성취하실 때
  - 2.3.1. ( ) 하실 때
    - A. 성부께서 아들 하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심
    - B. 성령께서 마리아에게서 인성을 취하여 아들의 신성과 신비한 연합을 이루게 하심(눅 1:35)
  - 2.3.2. ( )를 받으실 때
    - A. 성령께서 그 위에 비둘기처럼 임하여 그가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냄(마 3:16)
    - B. 성부께서 "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"고 선언하심(마 3:17)
  - 2.3.3. ( )에서 죽으실 때
    - A. 성부께서 죄인을 향한 모든 진노를 쏟아 부으심
    - B. 성자께서 하나님의 진노를 모두 담당하심
    - C.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하나님께 제물되게 하심(히 9:14)

#### 2.4. ( )을 부르실 때

2.4.1.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소유된 모든 자들을 아심(요 10:14-15)

2.4.2.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( )을 부르심(요 10:3)

2.4.3. 아버지께서 그리스도께 나아가라고 속삭이심(요 6:44)

2.4.4.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의 손에 이끌려 그리스도께 나아감(엡 2:18)

2.5. 새 하늘과 새 땅에서: 성삼위 하나님이 영원히 하나 되어 중심에 계실 것!

### 3. 결론

3.1.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는 거룩한 성삼위 하나님의 결정

3.1.1. 세 위격 모두가 협력할 때까지는 결코 믿음을 가지지 못한다.

3.1.2. 바울의 회심의 경우

A. 성부께서 바울을 택하시고, 구원의 때를 정하시고, 그를 부르심(갈 1:15-16)

B. 성자께서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에게 나타나 이름을 부르심(행 9:3-4)

C. 성령께서 아나니아가 안수할 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심(행 9:17)

D. 그제서야 바울이 침례를 받고 공동체의 일원이 됨(행 9:18-19)

3.2.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, 기다려야 한다(행 9:11)